https://doi.org/10.5392/JKCA.2018.18.09.156

초심 수퍼바이저의 역전이 경험과 의미연구

A Study on the Countertransference Experience of Novice Supervisors and the Meaning

김명화, 홍혜영
명지대학교 심리재활학

Myong-Hwa Kim(touderi@hanmail.net), Hye-Young Hong(hyhong@mju.ac.k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초심 수퍼바이저가 수퍼비전에서 경험하는 역전이와 그 의미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수퍼비전 경력 5년 이하인 초심 수퍼바이저 7명을 연구 참여자로 의도 표집 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현상학적 연구로 참여자가 경험한 현상과 의미를 발견하는데 적합한 Giorgi의 4단계 따라 자료를 분석 하였다. 그 결과 '역전이 자각의 어려움', '수퍼바이지의 성장에 대한 기대와 조급함', '수퍼바이지와 동일시', '수퍼바이지와 좋은 관계 유지에 대한 바람', '수퍼비전에 대한 회피', '전문가로 서기 위한 고군분투'의 6가지 주제로 나타났다. 초심 수퍼바이저들의 미해결된 문제와 욕구가 역전이로 나타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수퍼비전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수퍼비전에서의 역전이는 부정적인 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 중심어 : | 초심 수퍼바이저 | 수퍼비전 | 역전이 |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countertransference and its meanings, experienced by novice supervisors in the supervision. For this, total seven novice supervisors with supervision experience for five years or less were purposively sampled, and then th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As a phenomenological research,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in accordance with the Giorgi's 4-Stages, suitable for discovering the phenomenon and its meanings, experienced by research participants. In the results, there were six themes such as 'difficulty to realize the countertransference', 'expectation and impatience of supervisee's growth', 'identification with supervisee', 'hope for maintaining a good relationship with supervisee', 'avoidance of supervision', and 'struggle for standing up as an expert'. The unsolved problems and desires of novice supervisors were revealed as countertransference, which influenced the supervi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the countertransference of supervision has not only negative aspects, but also a positive meaning in the aspect that they could deeply understand themselves and others.

■ keyword : | Novice Supervisor | Supervision | Countertransference |

접수일자 : 2018년 07월 30일
수정일자 : 2018년 08월 31일
심사완료일 : 2018년 08월 31일
교신저자 : 홍혜영, e-mail : hyhong@mju.ac.kr

I. 서 론

전이와 함께 치료 관계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지각이 되어 온 역전이를 내담자와 상담자에게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정신 건강 분야에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있어 왔다[1]. 정신분석이론의 초기에는 역전이를 내담자의 전이에 대한 상담자의 무의식적이고 방어적인 반응으로 보았기 때문에, 치료에 방해가 되고 극복하여야 할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식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찰력이 깊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되면서 역전이의 긍정적인 면이 조명받기 시작하였다[2]. 대상관계를 비롯한 현대 정신분석이론에서는 역전이를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유용한 도구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후 여러 이론의 영향을 받아 점차 변화를 거치게 되었다[3]. 내담자의 전이에 대한 상담자의 반응으로 한정짓고 부정적으로 인식되었기에 피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졌던 고전적 역전이 개념은 상담자가 내담자를 이해하는데 제한이 따르고, 자신의 정서적인 감정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단점이 제시 되었고, 이후 제언된 전체적 접근에서는 역전이를 보다 광범위하게 보게 되면서 상담자가 내담자를 향하여 가지게 되는 모든 의식적, 무의식적인 반응과 감정, 인지 모두를 뜻하는 개념으로 보았다[4]. 고전적 접근에서 역전이를 부정적인 것으로만 인식하여 상담에서의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가지게 되었다면, 전체적 접근은 모든 반응을 내담자에게 돌릴 수 있고 역전이 원래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절충적 접근이 나오게 되었다. 절충적 접근은 부정적으로만 보는 고전적 접근과, 너무 포괄이고 상담자의 문제를 내담자에게만 찾는 전체적 접근의 단점이 지적되면서 제언된 두 접근의 장점만을 살린 개념이다. 절충적 접근은 내담자의 문제나 특성으로 인한 상담자의 반응으로 상담자의 갈등은 과거 미해결된 신경증적 갈등뿐 아니라 현재 일어나는 문제의 갈등 또한 포함시킨다. 그러므로 상담자가 자신의 반응에 대한 근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4]. 역전이는 정신 분석과 관련되어 있지만 치료 방법에 상관없이 상담자의 경험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상담자의 과거 감정적인 경험이 현재의 상황과 비슷할 때 나타나게 되므로, 역전이 감정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상담 장면에서 역전이를 인식하고 조율할 수 있는 상담자의 역량이 요구된다[5]. 만일, 상담자의 생각이 일방적인 방향으로 치우치거나 자신이 생각하는 규준을 스스로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내담자에게 사실과 다른 입장을 투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담자에게 느껴지는 상담자의 역전이 감정을 스스로 관리하거나 수퍼비전에서 다루지 않으면 내담자에게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수퍼바이저는 상담자가 경험하였던 역전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6].

내담자를 보호하고 상담자의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며, 상담자의 능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바로 수퍼비전이 될 수 있다. 수퍼비전에서 상담자에 대한 피드백은, 상담자가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물론 상담자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장점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도 포함된다[7]. 이러한 수퍼비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상담에서의 역전이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수퍼비전에서의 역전이 개념이 제시되며 수퍼바이저의 역전이를 다루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수퍼바이저가 수퍼비전에서 자신의 역전이를 깨닫고 받아들여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다[8]. 이와 연관된 연구를 살펴보면 Grant와 동료들[9]은 자신들의 연구에서 수퍼바이지와 수퍼바이저가 함께 담화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수퍼비전이기에 이 과정 중 나타나는 불편함이 수퍼비전의 관계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역전이로 인하여 수퍼비전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수퍼바이저가 자신의 역전이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10][11]. Ladany와 Ellis, Friedlander[12]는 역전이에 대하여 수퍼바이저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 혹은 수퍼비전 관계에서 수퍼바이지의 대인 관계 방법의 응답에 대한 수퍼바이저의 감정과 태도로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수퍼바이저가 습관적으로 과도한 분노를 느낀다면 그 감정이 유발되는 조건이 무엇인지, 상담자의 방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과

행동, 감정의 근원을 탐색해야 한다는 것이다[13]. 수퍼바이저가 자신의 역전이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면 내담자와 수퍼바이지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수퍼비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14], 수퍼바이저가 자신의 역전이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정리해 보면, 수퍼비전에서의 역전이는 불가피하며, 정서적으로 인지적으로 그리고 행동적으로 나타난다. 향후 회기와 관련한 우려 또는 과도한 기쁨, 과도한 분노나 증오, 애정, 수퍼비전의 종결을 강하게 원하게 되는 등의 감정으로 나타나므로, 자신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을 모니터링 해야 하고, 수퍼바이저는 이와 같은 반응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14].

반면, 국내의 역전이 연구는 상담자의 역전이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역전이 관리 능력에 대한 연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상담의 성과와 상담의 만족도, 자기효능감등을 포함한 상담자의 특성 및 상담자의 발달단계, 작업동맹등과 같은 변인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수퍼바이저의 역전이나 수퍼바이지와 수퍼바이저의 관계에서 역전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작용하는지에 대하여 이루어진 연구는 드물다. 최근에 이루어진 전수경[15]의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수퍼비전을 수행하는 숙련된 상담자의 특성을 알아보았고, 하 정[16]은 상담심리전문가의 역전이에 대하여 그 과정을 알아보았다는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수퍼바이저로서의 시각이 아닌 상담자로서의 시각을 중점으로 살펴보았으므로 수퍼바이저로서의 역전이를 탐색하는 것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

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지를 가르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지게 되므로, 내담자에게 권력을 갖는 상담자처럼 수퍼바이지에게 힘을 행사할 수 있다[17]. 따라서 수퍼바이저의 매력적인 역할에 사로잡히기도 하지만, 이러한 권위의 착각으로 인하여 자신의 문제를 수퍼바이지나 내담자에게 투사하기도 하고,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힘을 과시하거나[14],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마주하기를 꺼려하여 그 문제를 내담자나 수퍼바이지에게 전이시킬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국내의 수퍼비전은 대부분 도제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상담자들은 수퍼비전 경험을 통해 자신의 수퍼비전을 모델링하게 되므로 수퍼바이저의 영향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18]. 따라서 수퍼바이저가 자신의 역전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수퍼비전을 실시한다면 수퍼바이저 자신 뿐 아니라 상담자와 내담자에게도 영향을 주게 된다. 수퍼바이저가 자신의 역전이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수퍼바이지가 경험하고 본받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19], 수퍼비전에서 도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퍼비전 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의 역할에 발을 내디딘 초심 수퍼바이저들의 역전이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려 한다. 본 연구에서 초심 수퍼바이저들의 역전이를 중점으로 둔 이유는 수퍼비전이라는 전문적인 역할을 시행하게 됨으로써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이러한 '역할 충격'으로 인하여 경직된 수퍼비전을 하게 되거나 수퍼바이지와의 관계가 견고하지 못할 수 있다. 이것은 익숙하지 않은 수퍼비전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며, 수퍼바이저 자신이 상위 수준의 단계로 발달하고 있을 때 불안함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숙련된 수퍼바이저는 자신의 역전이를 다루는데 유연했지만, 자신의 수퍼비전을 완성해가는 초심 수퍼바이저들의 역전이에 대하여 알기는 어려웠다. 더군다나 수퍼바이저의 수퍼비전을 모방하게 되는 특성으로 볼 때 수퍼바이저의 역할은 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수퍼비전에서 경험되어지는 초심 수퍼바이저의 역전이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역전이에 대한 접근 중 수퍼바이저 자신의 갈등과 욕구의 결과로 인하여 수퍼바이지에게 보이는 반응을 역전이라고 정의한 절충적 접근을 따르기로 하였다. 절충적 접근은 개인의 반응에 대한 근원을 밝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초심 수퍼바이저와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실증적인 탐색을 함으로써 역전이의 현상을 알아보려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제시한다. '초심 수퍼바이저의 역전이 경험과 그 의미는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수퍼바이지는 수퍼바이저를 모델삼아 배우기 때문에,

수퍼비전을 통하여 자신의 상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지도받는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수퍼비전을 실시하는 교사로서의 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지의 전문적인 발달을 위해 사례개념화를 포함한 상담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므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며, 더 나아가 자신의 특성과 완전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여야 한다[13]. 또한 수퍼바이지에게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하고, 수퍼바이지의 경험을 지지해주고 변화하도록 돕는 것도 포함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퍼바이저는 자신의 지식과 역량, 능력 및 기술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반응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20]. 수퍼비전은 이처럼 고된 일이지만, 수퍼바이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한계와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해한다는 것은 자신의 역전이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을 포함한다. 먼저 상담자로서의 역전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역전이는 상담자가 내담자와 관련하여 경험하는 사고, 감정, 행동 등을 의미하며 상담자에게 정서적, 인지적, 그리고 행동적으로 나타난다.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을 민감하게 자각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욕구를 기초로 한 인지와 정서로 내담자의 경험을 파악하게 되므로, 무의식적으로 성공적인 치료를 방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가 내담자의 부적응적인 감정이나 행동으로 인한 역전이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상위 수준의 비언어적인 행동, 예를 들어 시선이나 동작, 몸짓, 태도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여[21], 상담자가 자신의 역전이에 대하여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반응해야 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았다. 이러한 상담자의 역전이는 과도한 개입, 그리고 반대로 지나치게 개입을 하지 않는 상반된 개념 모두를 포함한다[22][23]. 이들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주로 긍정적인 역전이 행동과 부정적 역전이 행동으로 구분되는데 긍정적 역전이는 내담자와의 작업동맹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과잉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고, 부정적 역전이는 내담자와의 상담과정이나 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 긍정적, 부정적 역전이 모두 상담자 스스로 자신의 역전이를 깨닫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다음으로 상담자의 역전이뿐 아니라 수퍼바이저의 역전이에 관한 연구들[9][24]에 의하면,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역전이를 느끼는 것처럼, 수퍼바이저 또한 그들의 수련생인 수퍼바이지에게 느끼는 역전이 감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수퍼비전에서의 관계는 수퍼바이저에게 강한 역전이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인데[9], 이러한 이유로 수퍼바이저의 역전이에 의해 수퍼비전과 수퍼바이지에게 주는 영향들이 주목을 받게 되면서 수퍼바이저의 역전이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Jacobs[25]는 수퍼비전 관계 내에서 일어나는 수퍼바이저의 역전이 반응으로 인하여 수퍼바이저가 자신의 능력을 남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수퍼바이지가 전이를 경험하고, 수퍼바이저에게 전이의 감정을 투사를 할 때 강한 반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수퍼바이저가 이러한 역전이를 인식하고 경계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Ladany와 그의 동료들[26]은 수퍼바이지의 대인관계와 수퍼바이저의 미해결 문제가 역전이를 일으킨다고 보았고, 수퍼바이저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수퍼비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들은 연구에서 수퍼바이저 자신의 역전이로 인하여 초반에는 수퍼바이저와의 관계가 약화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퍼바이지와의 관계가 강화되었다고 하여 역전이가 수퍼비전의 관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고 하였다. 하지만 수퍼바이저의 역전이가 수퍼비전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하여는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이와 연관되어 Vyskocilova와 Prasko[20]는 수퍼바이저가 역전이로 인하여 자신의 내면세계에 대한 통찰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켰지만, Teitelbaum[27]은 수퍼바이저의 역전이로 인하여 수퍼비전의 과정과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하여[28], 서로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퍼바이저의 역전이가 수퍼비전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에는 일치되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수퍼바이저의 역전이 특징을 자세히 기술한 Prasko와 Vyskocilova[14]에 의하면 역전이가 특정한 이론에서 뿐 아니라 모든 이론, 예를 들면 인지행동이나 정신분석, 인간중심과 같은 모든 이

론의 수퍼비전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수퍼바이저의 반응에 매우 중대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수퍼바이저 목소리의 고조, 긴장이나 불안, 수퍼비전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거나 수퍼비전을 길게 하는 것, 그리고 일찍 끝내는 것 모두 역전이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형태라고 하였다. 또한 수퍼바이지의 편에 서서 지나치게 수퍼바이지를 보호하려고 노력하거나 부정적 피드백을 망설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Grant와 동료들[9]의 연구에서는 수퍼바이저가 수퍼비전을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역전이를 해결 하는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숙련된 수퍼바이저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개입, 치료적 관계의 성적 성향과 같은 '수퍼바이지의 능력과 윤리적 행동', 오만하고 방어적인 '수퍼바이지의 특성', 분노와 비판, 지루함의 감정인 '수퍼바이저의 역전이' 및 전이와 병렬과정인 '수퍼비전 관계의 영역'등 네 가지 영역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수퍼비전을 실시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중 하나로 역전이를 제안하면서, 수퍼바이지가 저항하거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는 것, 수퍼바이지의 무능력과 같은 요인을 다루기 위하여 수퍼비전에 대한 수퍼비전이나 자기 모니터링이 역전이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소수연[29]은 수퍼바이저가 이행하여야 할 태도와 행동 등 수퍼바이저로서의 전문적인 요소를 알아보기 위하여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전문가로서의 요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유용하지만, 수퍼바이저의 역전이나 심리적인 특수성을 면밀하게 알아보기에 역부족이라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장세미[30]는 초보 수퍼바이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숙련된 수퍼바이저로 발달해 나아가는 과정을 알아보았으므로, 상담자로서 자기 스스로 정서적으로 알아차리고 역전이에 대한 인식과 역전이를 활용하는 수퍼비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숙련된 수퍼바이저로서의 과정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초보와 숙련 수퍼바이저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숙련 수퍼바이저가 초보였을 때의 기억을 회상하여 비교한 것이므로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수퍼바이저가 수퍼비전에서 경험하는 역전이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 여겨진다. 앞서 제시 하였듯 역전이는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어떠한 기법에서도 나타나며, 수퍼바이지와 내담자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본 연구는 '초심 수퍼바이저의 역전이 경험과 그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연구 문제로 선정하여 초심 수퍼바이저의 역전이 현상에 대하여 탐색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역전이는 초심 수퍼바이저 개인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지극히 사적인 과정이기에 수치로 환산할 수 있는 양적연구로는 자세히 알기 힘들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제적이고 세밀한 탐색을 하고자 질적 연구의 한 방법인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는 인간 경험을 기술하고 분석한 자료를 통해 그 경험이 가지는 의미를 알아내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에 대하여 다수의 개인들이 경험하는 체험적 의미를 기술하는 것으로[31],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경험의 본질을 탐구할 때 어떠한 전제나 가정을 하지 않고 기술을 재해석하여 새로운 의미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현상학자들은 존재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사물을 그 자체, 즉 '있는 그대로'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32]. 선입견을 배제하고 의식의 경험을 그대로 검토할 때 비로소 순수한 의식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상학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현상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는 주관적이고 사적인 감정, 선호, 경향성, 기대 등을 극복하고 과학적 지식이나 전제들을 유보한 채 현상 자체로 돌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현상학에서의 일상세계는 인간 경험과 사회적 행위의 주관적인 세계로서의 일상세계이므로, 연구 참여자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을 기술하고 그대로 그 현상을 묘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Giorgi[33]는 인간 경험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연구하는 현상에 대하여 기술하는 것을 강조한다. 인터뷰와 같은 자료에서 얻어지는 참여자의 언어로 된 기술을 통

해 참여자가 경험한 현상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참여자의 언어로 된 인터뷰의 원자료를 기술하고 분석하는 Giorgi의 방법이 초심 수퍼바이저들이 경험한 현상과 의미를 발견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Giorgi는 참여자들의 언어를 전사한 원자료가 방대한 양이어도 연구 주제에 적합하도록 연구자가 사실적 개념으로 수정, 변형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기술하는 것을 연구자의 몫으로 여겼으므로 연구 분석에 대한 절차를 거치며 기술하는 것에 비중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33]. 이처럼 수퍼비전에서 초심 수퍼바이저의 역전이가 생생하고도 직접적으로 경험되어져야 하므로 Giorgi의 방법을 적용하여 경험의 본질을 중심으로 현상의 구조를 밝히고자 한다[31].

1.1 연구 준비와 참여자 선정

연구자는 청소년 상담사 2급과 한국상담심리학회의 1급 자격, 그리고 10년의 상담 경력과 3회의 질적 연구 실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연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질적 연구 수업에 참여하는 것 이외에도 질적 연구로 이루어진 학술지와 연구 논문을 지속적으로 읽었으며, 한국심리측정평가학회와 한국교육인류학회의 워크숍에 참여하여 질적 연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노력 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이전 연구에서 경험하였던 초심 수퍼바이저들의 이야기들이 현재 연구하는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며, 연구자가 가진 선입견과 가정들로부터 초심 수퍼바이저들을 개별화 시키려 의식적으로 노력하였다. 연구자는 긍정적인 감정을 역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부정적인 역전이 감정을 수퍼바이지에게 표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었으므로, 연구자로서의 '나'와 관찰자로서의 '나', 이전 연구의 경험자로서의 '나'를 인식하고 분리할 수 있도록 노력 하였다.

질적 연구를 실행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은 연구에 참여하는 수퍼바이저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일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연구 절차의 타당성을 검수받기 위하여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였다.

질적 연구의 참여자는 연구 주제에 대해 가장 적절하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적절성'과 연구 현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충분성'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하므로, 이론적 표본 추출을 사용하여 본 연구의 주제를 잘 드러낼 수 있는 대상을 표집 하고자 하였다. 공유한 경험을 탐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참여자가 3~6명 정도일 때 정보의 양이 적절하고, 참여자간의 유사점이나 차이점도 확인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34], 수퍼비전에서 경험하는 자신의 역전이를 있는 그대로 말해 줄 의향이 있고, 언어로 풍부하게 표현하여 자신의 생활 세계 안에서 경험하는 것을 잘 드러내어 줄 수 있는 참여자 7명을 선정 하였다. 상담경력 6년 이상, 수퍼비전 경력 1년 6개월에서 5년 이하에 해당하는 수퍼바이저를 초심 수퍼바이저로 정의 내린 전정윤[35]의 연구에 근거하여 초심 수퍼바이저를 선정 하였고, 수퍼비전 경험이 과도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수퍼비전 수행 횟수를 최소 10회 이상으로 지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인된 국내의 상담관련학회 즉,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한국기독교상담치료학회 그리고 가족치료학회의 수퍼바이저를 포함시킴으로써 다양한 학회에 소속된 수퍼바이저의 역전이 경험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이처럼 제한된 기준을 설정하였으므로 우선 연구자와 가까운 초심 수퍼바이저에게 연구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후 그 참여자가 다른 초심 수퍼바이저를 소개시켜주는 눈덩이 표집법으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는 두 번째 인터뷰를 마친

표 1. 연구 참여자의 배경

참여자	연령대	근무형태	상담배경	수퍼비전 실시횟수
1	30대	대학상담실	인지행동	30 회기
2	40대	대학상담실	절충적	20 회기
3	50대	청소년시설	절충적	35 회기
4	50대	공공기관	절충적	35 회기
5	50대	개인센터	절충적/ 게슈탈트	27 회기
6	40대	병원	절충적	30 회기
7	60대	개인센터	절충적	17 회기

후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고, 이들 연구 참여자의 기본 정보는 [표 1]에 제시하였다.

1.2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참여자와 같은 요건을 갖춘 두 명의 수퍼바이저를 예비 인터뷰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질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최종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인터뷰 질문 내용은 '역전이가 일어났던 수퍼바이지와의 관계 경험이나 수퍼비전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역전이를 자각한 후 자신이나 수퍼바이지를 보는 것이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십시오.'등 이었다.

참여자들의 본 인터뷰에 앞서 연구의 목적과 소요시간, 질문 내용, 비밀보장, 개인정보를 다루는 방법과 인터뷰 진행 방식, 그리고 참여자가 원하면 언제든 불이익 없이 중단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설명문과 동의서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인터뷰는 참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참여자가 근무하는 센터나 인근 스터디 룸에서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을 위한 인터뷰는 2017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3번의 심층 면담과 2번의 전자메일로 이루어졌고 한 회기의 인터뷰는 45분에서 1시간 1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1차 인터뷰에서는 수퍼비전에서 경험한 역전이에 대하여 면담을 하였고, 2차 인터뷰와 3차 인터뷰에서는 이전 면담에서 추가적인 내용을 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전 인터뷰에서 연구자가 모호하게 여겨지는 부분을 확인하였다. 또한 1차 인터뷰와 2차 인터뷰 사이에 진행된 수퍼비전에서의 역전이 경험도 추가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의 현상학적 분석이 모두 끝난 후에도 참여자들에게 이 메일로 자료를 모두 보내주어 마지막까지 잘못 이해된 부분과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의 참여자와 수퍼바이지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현장의 느낌을 잃지 않기 위하여, 연구자가 인터뷰 내용을 직접 전사하고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하였으며, 참여자의 원자료 파일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연구자만이 알 수 있는 기호로 변환하여 보관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경험한 역전이의 전반적인 느낌을 잃지 않기 위해 원 자료를 반복해서 읽으며, 참여자들의 경험과 의미를 이해 하고자 하였다. 인터뷰 도중에는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는 단어나 문장들, 그리고 인터뷰 분위기나 연구자의 느낌들도 기재하였다.

초심 수퍼바이저들의 역전이에 관한 심층면접에서 자료의 수집과 분석, 글쓰기 과정은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진행되었으며 더 이상 새로운 주제가 도출되지 않을 때까지 그 내용이 포화된 상태에서 인터뷰와 분석을 마무리하였다.

1.3 연구 분석팀

연구 시작 시점에서 상담심리전문가인 초심 수퍼바이저 3명을 연구 분석 팀으로 구성하여 질적 연구물을 함께 읽고 토론하며 질적 연구에 대한 이해도를 잃지 않고,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 분석 팀은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을 함께 하였다. 연구자가 분석한 주제들이 수퍼바이저의 역전이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적 경험이나 상담에서의 역전이와 관련된 내용은 제외시켰고, 적절하게 의미 주제들이 묶일 수 있는지 연구 분석 팀과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다. 예를 들어, 연구자는 '역전이 감정을 회피'하는 것을 전문가로서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하여 '전문가로 서기위한 고군분투'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연구 분석 팀은, 역전이 자각이 잘 되지 않았기에 억압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역전이 자각의 어려움'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이처럼 연구자가 추출한 의미단위에 대하여 함께 검토를 하였고, 추출한 중심의미를 구조적으로 통합하는 단계에서도 연구 주제의 본질을 반영하고 구조가 가지는 요소들 간의 관계가 합당하게 반영되었는지 토론하고 수정하는 것을 반복하였다.

1.4 감수

감수자는 상담 관련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23년의 상담 경력과 16년의 수퍼비전 경력, 다수의 상담 관련 연구 경력이 풍부한 한국상담심리학회 소속의 상담 전문가이다. 연구자는 감수자로부터 연구 전반에 관한 절차 및 방법, 연구 윤리에 대하여 지속적인 감수를 받으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1.5 자료 분석

자료의 분석은 해체화 그리고 재구성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학적 방법에 따라 진행되었다. Giorgi의 방법은 개인적인 특징이나 성질보다는 연구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여 지는 의미를 찾아내는데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참여자가 드러낸 언어에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는 단어나 문장을 찾아내고 이를 기본으로 하여 추상적인 언어로 재구성하여 의미를 찾으며, 이를 주제 묶음으로 범주화를 한 후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기술한다[36]. 그렇기 때문에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필사하여 연구 자료로 삼는다. 본 연구는 초심 수퍼바이저의 역전이 현상을 알아보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Giorgi의 연구 방법을 따르기로 하였다.

Giorgi의 방법을 근거로 한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의 녹음 자료를 여러 번 듣고 그 내용을 전사한 원자료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자료들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중복되는 의미와 그렇지 않은 의미들을 확인하면서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원자료를 읽으며 참여자들의 진술에서 역전이 경험의 본질에 초점을 두고 문장마다 파악하였고, 참여자의 일반적인 언어 그대로 기술한 것을 기초로 의미 단위를 구분하는 과정을 거쳤다. 셋째, 참여자의 일상적인 표현이 제대로 표현될 수 있도록 전체적 흐름을 고려하여 학술적인 언어로 변형시키며 기술하였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전사된 원자료를 다시 읽고 내용을 재수정하는 작업을 반복하였다. 넷째, 변형된 의미단위들을 경험의 의미로 표현하면서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도록 구조화하는 절차를 거쳤다[31]. 마지막으로 이 현상에서 뒤로 물러나 구조적 진술을 통해 얻어진 의미들을 다시 파악하고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1.6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질적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므로 연구의 질을 높이고자 Guba와 Lincoln[37]이 제시한 적용성, 일관성, 사실적 가치, 중립성 네 가지 평가 기준[38][39]을 근거로 삼았다.

첫째, 양적 연구에서 외적 타당도에 해당하는 적용성은 연구의 결과를 독자들이 읽고 난 후 자신들의 경험에 미루어 의미가 있다면 타당도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질적 연구는 소수의 참여자에게 심층 면접을 하여 얻은 방대한 양의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므로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충분하게 묘사할 수 있고, 연구 결과를 독자들이 읽었을 때 자신들의 경험으로 미루어보아 의미 있고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여겨지면 적용성을 판단할 수 있다. 연구자는 자신의 역전이를 솔직하고 충분하게 자신의 경험을 나타내줄 수 있는 대상자를 선택했다고 판단하였고,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충분하게 나타내었다고 보았다. 적용성 확보를 위하여 한 참여자의 이야기를 다른 참여자에게 읽도록 하여 그 내용이 타당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그 내용이 합당하고 이해가능하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둘째, 자료 수집과 절차, 분석, 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퍼비전 경력과 연구 경력이 많은 감수자에게 연구 전반에 걸친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진행하였다. '수퍼비전에서의 역전이가 수퍼바이저 성장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은 내용이 다소 포괄적이라는 조언에 따라 '역전이 감정이 수퍼비전 회기와 다음회기, 전체회기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처럼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수정하였고, 또한 다양한 학회의 수퍼바이저를 참여 시키는 것이 역전이 경험을 풍부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라는 조언에 따라 여러 학회의 초심 수퍼바이저를 선정하였다. 셋째, 양적 연구에서 내적 타당도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적 가치이다. 연구가 실재를 꾸밈없이 나타내주는지 연구자가 지속적인 질문과 확인 과정을 통하여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높이려 하였고,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동료 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에 대하여 연구노트에 적어놓고 개인의 선입견으로 인하여 면담내용을 왜곡하지 않도록 판단중지를 하려 노력하였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질적 연구에서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도록 노력 하였다.

Ⅳ. 연구 결과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6가지의 범주와 13개의 주제가 추출되었고, 그 내용은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자료 분석 결과

범주	주제
역전이 자각의 어려움	역전이를 알아차리지 못함
	역전이 감정을 회피함
수퍼바이지의 성장에 대한 기대와 조급함	수퍼바이지 수준이 낮을 때 답답하고 화남
	불성실한 수퍼바이지로 인해 불편함
수퍼바이지와 동일시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듦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짐
수퍼바이지와 좋은 관계 유지에 대한 바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거나 침묵함
	수퍼바이지의 눈치를 봄
	에둘러 표현하거나 과도한 칭찬을 함
수퍼비전에 대한 회피	수퍼비전을 열심히 하고 싶지 않음
	수퍼비전을 피하고 싶음
전문가로 서기 위한 고군분투	자격지심을 느낌
	스스로를 믿지 못함

범주 1. 역전이 자각의 어려움

초심 수퍼바이저들은 상담자로서 특정한 내담자나 상담 장면에서 어떤 역전이 감정이 올라오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반면, 수퍼비전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에 대해서는 역전이라는 생각을 해 본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역전이 감정을 인식하였을 경우에는 당황스러웠다고 하였는데, 이는 초보라는 사실을 수퍼바이지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자신이 초보라는 사실을 수퍼바이지가 알게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드러나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수퍼비전에서 느껴지는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난감했었던 것이다. '초보' '전문가' 임을 감추기 위한 불안한 감정을 억제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불안함을 수퍼비전 사례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점차 알아가게 되었다.

주제 1. 역전이를 알아차리지 못함

초심 수퍼바이저들은 상담에서의 역전이에 대하여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하였지만, 수퍼비전에서의 역전이는 생각해 보지 않았기에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역전이를 인식했다고 하여도 상담에서의 역전이 처럼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을 어려워하였다.

"역전이... 딱 퍼뜩 떠오르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그런 막연함이 있네요." (참여자 5)

"수퍼바이저의 역전이... 모르겠는데요. 상담자의 역전이는 많이 느끼는데 수퍼바이저의 역전이는... 생각을 안했는데 있는 거 같더라고요. 느끼기도 했고... 근데, 글쎄요... 음... 딱 얘기하려니까 어떤 거였나... 잘 모르겠네요. 어떤 게 있었을까... 많이 있었던 거 같은데..." (참여자 4)

주제 2. 역전이 감정을 회피함

역전이라고 할 때 초심 수퍼바이저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감정들을 떠 올렸고 그 감정들을 경험하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고 당황스럽게 느껴졌다. 역전이를 인식하게 될 때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역전이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여겨지므로 당황스럽고, 수퍼바이지에게 자신의 문제를 들켜버린 기분이 들었다. 또한 전문가로 비춰지지 않을 것 같아 염려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였다. 초심 수퍼바이저들은 자신의 역전이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할 경우 수퍼비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알지 못하였기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의식적으로 억누르는 것 뿐 이었다.

"부끄럽다고 할까...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부끄럽고 이런 게 있지요. 내 스스로 이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내 안에, 아직도 내가 부족 하구나... 그러면서 내 자신을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거 같고, 음... 근데 그것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들켰다고 생각이 되면...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참여자 4)

"참아요. 네. 역전이가 내가 일어난다는 것을. 네. 그 당시에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아니까 참지요. 네. 아니까

참아요. 내담자하고는 잘 해요 되게. 너무 쉽게 너무 잘 되는데, 상담자로서는 어우 정말 되게 편하게 얘기를 너무 잘하고 저는 내담자하고 상담하는 건 되게 자신감도 있고, 그런데 수퍼비전에서는 안 되는 거지요. 내가 별로 수퍼비전의 경험도 별로 없고, 저는... 음... 그래서 그렇게 그냥 상담 장면에서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얘기만 했어요." (참여자 1)

범주 2. 수퍼바이지의 성장에 대한 기대와 조급함

초심 수퍼바이저들이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은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서 여러 감정들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수퍼바이지의 배경과 이력은 수퍼바이지의 현재 실력을 가늠하게 되는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하므로, 이러한 기대가 높을수록 실망감도 커진다. 초심 수퍼바이저들이 염려스러운 것은 수퍼바이지의 실력이 낮아서 이기보다 수퍼비전에서 보여 지는 수퍼바이지의 부정적인 태도들이 상담 장면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었다. 내담자를 위하여 수퍼바이지가 하루 빨리 더 나은 상담자로 성장하길 바라는 기대는 조급함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주제 1. 수퍼바이지 수준이 낮을 때 답답하고 화남

상담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상담을 능숙하게 한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인 판단의 기준은 될 수 있다. 상담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는 인턴 수퍼바이지보다 전문가를 준비하는 수퍼바이지가 상담의 실력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된다. 그렇기에 전문가를 준비하는 수퍼바이지의 상담이 부족하다고 보여 졌을 때, 더욱이 상담에 임하는 자세에서 진지한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실망했고 불쾌한 감정이 올라왔다. 사람에 대한 존중이란 '상담자'라는 직업인으로서 '내담자'를 경제적 수익을 가져다주는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책임감과 의무를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내담자에 대한 애틋함과 진정성이 수퍼바이지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던 것이었다.

"1급 준비 다 된 사람으로서의 상담 같지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음... 깼어요. 상담을 잘 하는 줄 알았는데 의외네? 그게 아니네? 이 사람은 항상 말을 이렇게 문제를 더 이렇게 더 깊게 들어가서 직면해 줄 때도 가볍게 그냥 툭툭 치고 넘어가는구나." (참여자 2)

"제가 좀 화가 났거든요. 그니까 자격증을 따고 나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상담 공부, 이론 공부를 하거나 그래야 하는데 저는 약간 좀 수퍼비전만 잘 받으면 그냥 상담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제 경험상 수퍼비전만 받으면 안 되고 자기 나름대로 이론 공부를 하는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안하고 계속 수퍼비전만 많이 받으러 가는 사람? 네. 그런 사람 보면 저는 불쾌감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참여자 1)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내가 뭘 가르쳐줘야지~ 이런 태도로 상담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아이가 예를 들어서 '엄마 때문에 힘들어요~' 하는데, '야~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애들은 다 힘들어~ 사춘기는 다 그래~' 이러면서... '아니 이건 뭐지?' 화가 나더라고요." (참여자 3).

주제 2. 불성실한 수퍼바이지로 인해 불편함

초심 수퍼바이저는 자료를 통하여 내담자를 그려보고 이해하며, 수퍼바이지의 반응과 상담의 모습, 상담의 미래를 계획하게 된다. 수퍼바이지가 바쁜 것을 배려해주는 차원에서 수퍼비전의 자료에 너그럽게 이해해주니 점점 더 성의 없는 엉성한 자료로 되돌아오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수퍼비전 날짜에 임박해서 자료를 보내오거나, 수퍼비전에서의 불성실한 태도도 초심 수퍼바이저를 불편한 감정이 휩싸이게 하였다. 배려라고 생각했던 수퍼바이저의 이러한 행동은 짜증으로 되돌아올 뿐 아니라 더 나은 수퍼비전을 해주지 못하게 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더해져 나타났다.

"제가 그런 거에 좀 융통성이 많아서, 인턴 샘들의 상황을 맞춰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아침에만 읽을 수 있게 해줘~'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때로는 후루룩 축어록을 풀지 않고, 그냥 줄여서. 샘들이 너무 바쁘니까. 근데 인제 문제는 앞뒤 문맥이 맞게 그거에 대해 정확히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설명은 안 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너무 편하게 해

주다보니까 인제 그렇게 해도 (수퍼비전)와서 설명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서를 보면 은 다시 물어봐서 상황정리를 다시 해야 되니까 시간이 더 들더라고요." (참여자 2)

"사례 준비를 대충하고 그냥 와서 도장만 찍고 이런 식으로 설렁하게 넘어 가려고 그럴 때... 그럴 때 기분이 좀 나빠져요. 그런 것도 있고... 어... 저렇게, 저런 태도로 가면은 진짜... 상담사가 저런 태도로 가게 되면 은... 그 다음에 내담자들한테 갈 텐데..." (참여자 7)

"각색을 해서 적어오시는 분 있잖아요? 내담자 말한 대로 그대로 적어오지 않고 그걸 좀 이렇게 정리해서 가져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거를, 우리는 수퍼비전 할 때 그대로 수퍼비전, 축어록 그대로 가져가잖아요? 상담자 반응도 그래야 하는데, 어... 이 분은 각색을 해요. 정말 완화해서, 순화해서 자꾸만 갖고 오는데." (참여자 3)

범주 3. 수퍼바이지와 동일시

초심 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지가 적극적인 모습으로 수퍼비전에 참여하거나 수퍼비전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상담에서 시행하여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리고 수퍼바이지의 긍정적인 표현이 마음에 와 닿았을 때 기분 좋아짐을 느꼈다. 노력하는 수퍼바이지의 모습은 열심히 수련을 받았던 과거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였다. 수퍼바이지의 모습과 고단했던 자신의 모습이 겹쳐서 보여 졌기에 마음을 다해 도와주고 싶어 하였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었다.

주제 1.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듦

초심 수퍼바이저에게 지속적으로 수퍼비전을 받으러 온다는 것은 자신을 수퍼바이저로, 전문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되었기에 기분이 좋아졌고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자료를 주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켰다. 수퍼바이지가 적극적으로 임할 때, 수퍼비전에서의 피드백을 상담 장면에서 실행해보고 그 긍정적인 결과를 이후 수퍼비전에서 이야기해주었을 때 초심 수퍼바이저는 뿌듯함을 넘어서 자신도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수퍼바이저를 믿어주거나 뭔가 그 능력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린다던가 도움을 받았다고 그런 것들을 이제 크게 표현하거나 뭐 이럴 때, 그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오는 게 표현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때 인제 좀... 예쁜 생각들이 아무래도 들더라고요. 그럴 때는 제가 정말 남김없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고 싶은, 정말 그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참여자 6)

"저는... 음... 그니까 이렇게 수퍼비전을 할 때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먼저 질문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니까 수퍼바이지가 '이런 거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질문해 주는 게 되게, 저는 되게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코멘트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하냐? 뭐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 같으냐? 이렇게 미리, 자기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참여자 2)

"피드백을 해주면 은 너무 너무 100프로씩 받아들여요. 그렇게 받아들일 때에 저는 뭐라 그럴까... 되게 뿌듯하지. 뿌듯하면서 더 잘해야 되겠다. 아, 내가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 더 잘해야 되겠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 잘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잘 연구를 해야 되겠다. 더 잘해주겠다. 더 잘해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지요." (참여자 7)

주제 2.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짐

초심 수퍼바이저는 수련의 요건만을 채우러 오는 것이 아니라 수퍼비전 자체를 즐겨하는 수퍼바이지를 보게 되면, 진심으로 그들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길 원하게 된다. 상담을 즐겨하며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수퍼바이지를 보게 되면 기분 좋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다. 노력하는 수퍼바이지가 누구보다도 좋은 상담자로 성장하기를 바라게 되므로, 초심 수퍼바이저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고 나누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자기 단도리도 참 잘하고 열심히 하고, 여기를 디딤돌로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예쁘지요.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라 뭔가 이걸 통해서 더 발전하려고 하고,

더 크고 싶어 하고. 그런 걸 볼 때 정말 마음이 가지요." (참여자4)

"그 효과가 이제 내담자한테 딱 나타나서 상담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었다 하고 보고해 줄 때... 뭐... 되게 보람이 있지요. 내담자에게 해봤는데 이 내담자가 이런 표현을 하더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담자가 자기의 상황을 기록을 해보고 나서 스스로가 알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 줄 때 그럴 때는 되게 좋지요. 뭐냐 하면 하나를 던져주었는데 그 결과가 둘, 셋, 이렇게 된 느낌이죠." (참여자 5)

범주 4. 수퍼바이지와 좋은 관계 유지에 대한 바람

초심 수퍼바이저들은 수퍼바이지와의 관계가 원활하게 지속되기를 원하였기에 피드백을 할 때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보다는 참는 경우가 많았다. 수퍼바이지의 눈치를 보게 되고 해야 할 말을 돌려서 표현을 한다거나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단어 선택을 하면서 표현을 하였다. 때로는 과도하게 칭찬을 하는 등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지는 않고 있었다.

주제 1.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거나 침묵함

초심 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지에게 할 피드백을 생각하며 고민하였다. 실력과 개입이 부족하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그 수위를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난감하였다. 수퍼바이지에게 어떻게 말해야 상처받지 않을까하는 것이 초심 수퍼바이저들의 고민 중 하나였다. 자신의 피드백으로 인하여 관계가 어색해졌던 경험이나 자신이 과거 상처받았던 경험을 떠 올리게 되면 상처 주는 수퍼바이저가 되고 싶지 않았다. 또한 초심 수퍼바이저들이 악역을 맡고 싶지 않았던 것은 상담에 대한 직면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자신의 경험인 동시에, 좋은 수퍼바이저가 되고 싶은 욕구이기도 하다.

"단호함이 저는 되게 없는 거 같아요. 부족해요. 그 부분은. 근데 그 단호함이 상처를 안주고 가능할 것인가? 근데 모르겠어요." (참여자 2)

"선생님한테 선생님~ 너무 무성의하다고 그랬더니 상처받은 거예요. 제가 좀 직설적인 성격이거든요. 그걸 막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이가 나빠진 거예요." (참여자 1)

"이거는 제가 수퍼비전을 받았던 경험 이었던 거 같아요. 사실은 제가 수퍼비전 하러 가기 전에 수련과정에서 뭔 잘못을 했는지 다 알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게 지적하거나 야단맞고 혼났을 때 너무 너무 상담자로서 되게 좌절, 아니면 효능감? 뭐 자존감? 뭐 그런 단어들이 다... 다... 바닥을, 지구를 뚫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아무튼 너무 많이 혼나고 나면은 그 내용이 별로 기억에 많이 안 남았어요." (참여자 3)

주제 2. 수퍼바이지의 눈치를 봄

수퍼바이저는 수퍼비전을 하면서 가르치지만, 결국 수퍼바이저들도 수퍼바이지로부터 평가를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초심 수퍼바이저들이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될 수퍼바이지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수퍼바이저인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는지 살피게 되고, 자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지면 불안한 마음이 올라오고 신경이 쓰이게 되었다. 간혹 내담자를 위하여 피드백을 평소보다 강하게 했다고 여겨지면 수퍼비전이 끝나고 나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고, 편하지 않았다.

"제가 약간 좀 평가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수퍼비전을 할 때 그들의 반응을 제가 좀 많이 살피는 편이예요. 그게 뭔가 다들 이렇게 내가 하는 말에 정말 다 이렇게 공신력을 부여하나? 전문성을 부여하나? 뭐, 이렇게 해서 말을 한마디 해놓고도, 약간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하나? 수퍼바이지들의 그런 반응이나 그들의 얼굴 표정을 살피는 거 같아요." (참여자 6)

"제가 그 날은 저의 평소의 수퍼비전 하던 내용보다 좀 더 많이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청소년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위기개입을 해야 됩니다~ 에 대해서 평소보다는 좀 더 많이 세게 얘기를 하고 온 날은 불편하지요.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되게 많이 우셨거든요.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뭐 그래도 해야 되는 역할이니까 해야지 라고 머리로는 생각을 하는데 좀 부담이 되지요." (참여자 3)

주제 3. 에둘러 표현하거나 과도한 칭찬을 함

초심 수퍼바이저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수퍼바이지가 상처받지 않도록 피드백 하는 것이었다. 수퍼비전에서 눈물을 보이는 수퍼바이지를 대할 때면 마치 수퍼바이저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느껴져서 수퍼바이지의 기분을 풀어주려 애를 쓰게 되었다. 초심 수퍼바이저들은 과거 자신이 경험한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던 감정을 수퍼바이지가 느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칭찬을 과도하게 하거나 에둘러 표현하기도 하였지만, 마음 한 켠에는 수퍼바이지가 고쳐야할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하지 않으면 결국 수퍼바이지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는 것은 아닌지 혼란스러워졌다.

"제가,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엄청 칭찬을 일부러 많이 해주고, 다른 선생님들 앞에서~ 그게 그룹으로 하는 수퍼비전 이었거든요. '선생님 이거 되게 잘했다고, 막 한번 울고 나더니 성장 한다' 그런 식으로 얘길 했었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거기에 약간의 과장이 사실은 들어갔지요." (참여자 2)

"상담할 때도 우리가 항상 지지만 해주고 공감만 해주면 그걸 원하니까 좋아하겠지만, 과연 한 인간으로써 이 사회를 잘 살아가는데 있어 과연 득이 될까? 그리고 상담 끝나고 나서 자기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못보고. 네. 그게 저는 상담 할 때도, 이 수퍼비전 할 때도 고민 이예요." (참여자 1)

범주 5. 수퍼비전에 대한 회피

초심 수퍼바이저들에게 허술한 수퍼비전 자료는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때로는 자료준비를 완벽히 해 오는 것 보다 배우려는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허술하고 불성실한 자료는 수퍼비전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없고 수퍼바이저로 존중받지 못하는 것으로 느껴진다. 수퍼비전에서의 표정과 태도에서도 전문가로서, 수퍼바이저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 때면 수퍼비전을 열심히 하고 싶지 않고, 수퍼바이지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다.

주제 1. 수퍼비전을 열심히 하고 싶지 않음

수퍼바이지의 태도는 수퍼바이저에게 역전이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초심 수퍼바이저들은 수퍼바이지와의 관계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신뢰로운 관계이기를 바란다. 그렇기에 상담의 기술만을 전수해주는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심을 가진 만남이기를 원하는데 수퍼바이지와 그러한 신뢰 있는 관계가 아니라고 느껴지면 수퍼비전을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수퍼바이저의 피드백을 들으려 하지 않거나 시간만 모면하려는 태도들은 수퍼비전을 공들여 준비한 시간이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허무함이었다. 수퍼바이지가 피드백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의 답답함과 속상함은 수퍼바이저의 몫이며, 수퍼비전을 피하고 싶은 것은 부정적 감정을 억누르는 소극적인 표현을 의미한다.

"수퍼비전 관계도 약간의 그 상담적 관계처럼 어떤 인간적인 신뢰, 그런 게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 대해 어떤 거리감을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읽고 수퍼비전을 해줄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참여자 5)

"사례 나왔을 때만 얘기하고,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제가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동료잖아요. 그리고 그 분이 그거를 안 받아들이잖아요? 한 번 얘기하고, 수퍼비전 할 때 한번 얘기하고 그 뒤로는 아... 이 선생님의 태도구나. 그렇게 생각해야지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제 얘기하지 않지요." (참여자 4)

"'아~ 그렇군요 제가 이 부분을 놓쳤네요' 라고 하기 보다는 '제가 왜 그랬냐하면요'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그럴 때 좀 어려움을 느끼지요. 그러면 수퍼비전을 하면서도 많은 준비를 해 간 것을 얘길 다 못하고 오는 날도 있어요. 이 분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또 다 쏟아 부을 수는 없으니까" (참여자 3)

주제 2. 수퍼비전을 피하고 싶음

피드백을 하여도 상담에서의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거나, 허술한 자료준비를 하면서 수퍼바이저에게 동의를 구하는 경우 수퍼비전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든다. 수퍼비전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수퍼바이지

가 앞으로 오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게 되는 것이었다.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는 수퍼비전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와의 관계에서도 반복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수퍼바이지의 굳건한 태도로 인하여 초심 수퍼바이저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수퍼비전의 거절로 표현이 된다. 수퍼비전을 거절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수퍼바이지의 태도와 변화를 주지 못하는 초심 수퍼바이저 자신이다.

"그니까 대충하려고 하고... 대충 하려고 하고, 아니면 대충 해서 이렇게 시간을 때우고 싶어 하고 전문가답게 나한테 수퍼비전 받는 게 아니라... '아 선생님 대충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 이런 사람 보면... 그러면은.... 이러다가 '그냥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참여자 4)

"상담자의 태도가 중요한 건데, 저런 태도는 여기서 있는 패턴이 계속 내담자들한테도 갈 건데... 제대로 내가 예를 들어서 잘 배양이 되어서 이쪽으로 가야되는데, 못 배양한 것이, 또 못 배양한 것이 저쪽으로 갈 것 같은 것이 되니까... 기분이 찝찝해져버리지... 아, 그럴 때는 앞으로 내가 안 해 준다 그랬어." (참여자 7)

"거절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음. 나에게 좀... 이거는, 이러는 게 다음번에도 크게 변하지 않을 거 같았어요. 네. 그... 별로 안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제가 또 이렇게 아주 많이 숙련된 그런 수퍼바이저가 아니기 때문에 아~ 내가 이렇게 자꾸 내 마음에 와서 이렇게 불편하게 하면은 서로에게 좋지 않을 거 같다는 느낌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여자 3)

범주 6. 전문가로 서기 위한 고군분투

전문가가 되기 위한 여정은 험난하다. 초심 수퍼바이저들은 수퍼비전을 하면서 또 다른 성장 통을 경험한다. 초심 수퍼바이저들은 종종 무시당하는 듯한 기분에 대하여 말하였는데, 이것은 전문가인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무시당하고 화나는 감정이 올라와도 분노로 표현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수퍼비전에 대한 확신 부족이었다. 상담을 처음 시작할 때 자신이 잘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듯, 수퍼바이저로서 경력이 많지 않은 초심 수퍼바이저들 역시 자신의 수퍼비전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수퍼바이지도 결국에는 수퍼바이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므로 수퍼바이지의 반응을 살피게 되었던 것이다.

주제 1. 자격지심을 느낌

초심 수퍼바이저들은 '무시하는 느낌'에 대하여 말하였다. 잠시 대화를 한 후 수퍼비전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면서 사인을 요구하거나 수퍼비전 시간에 눈 맞춤 조차 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자기변명만 늘어놓는 경우 이러한 태도를 보면 수퍼바이저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져 자존심이 상하였다. 무시하는 것은 마치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으로 느껴져 기분이 나빠졌지만 그 감정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역전이 감정을 외면하기 보다는 그 감정을 인식하고 자신이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불쾌한 감정을 외면하기 보다는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을 온전하게 수용한다는 것이며 인간으로서 성숙해져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한 편으로는 좀 약간의 그... 분노도 있는 거 같아요. 뭐 '아니 배우겠다고 와놓고... 지금 뭐하는 거야?' 약간 이런 것도 있고, '건방지다?' 하하 약간 이런 마음도 들고... 네. 좀 있는 거 같아요. 아니면 약간 아니면 '네가 날 무시하는 거야?' 뭐 약간 그런 거지요. '내가 이름 있는 선생님들이 아니라서 네가 나를 무시하니?' 약간 이런 피해의식?" (참여자 6)

"교육이 있거든요. 교육 때 만나서 잠깐하고 싸인 해 달라고. 난 사실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닌데... '아 선생님 그냥 그때 만난 걸로 해줘' 이렇게... 동료이면서 또 인제 일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만약에 교수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참여자 4)

"눈을 안 마주쳐요. 자료, 여기만 봐요 여기만 여기만.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는 얘기하는데, 그 선생님은 그냥 이것만 보고 있는 거지요. 자료만. 수퍼비전 자료만. 너무 불쾌했지요." (참여자 1)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따져 묻는 상담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봤던 어떤 사례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는 그걸 못 봤는데 어디서 그런 걸 찾았느냐고 할 때. 그게 역전이일 수 있는데 도전 같은 거 해오니까." (참여자 2)

주제 2. 스스로를 믿지 못함

초심 수퍼바이저들은 수퍼비전 하면서 자신이 잘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자신이 수퍼비전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자신을 뒤돌아본다. 상담을 잘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들이 끊임없이 제시되고 있는 반면, 어떻게 해야 수퍼비전을 잘 하고 있는 것인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과거 수퍼비전 받았던 기억과 절차에 의지해 수퍼비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의 수퍼비전을 믿기 어렵고, 자기 확신이 강한 수퍼바이지를 마주하게 될 때면 자신감이 더욱 저하되었다. 수퍼바이지가 보는 것 이상으로 보지 못하면 자신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비춰질까봐 걱정이 되었다.

"수퍼바이저로서 그니까 저희가 이렇게 상담 이론이나 기법도 계속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퍼바이저로서의 뭐 어떤 수퍼비전을 해 주는 그런 기법이나 그런 것도 계속 발달 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좀 내가 잘 하고 있나? 그런 거에 대한 의구심 같은 게 좀 들어요. 네. 좀 들지요." (참여자 1)

"목표 설정에 있어서 좀 더 구체화시키라고 할 때 있잖아요. 어, 근데 구체화 시켰을 때에 그... 구체화 시킨 거를 좀 봐 줄때 저도 좀 어려운거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저 성격 자체가 저도 음... 약간 구체적인 거를 행동화해서 계량으로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수퍼비전 할 때 그걸 봐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그게 어렵더라고요." (참여자 2)

"'제가 뭐 이쪽에서 상담을 많이 해 봤는데요~' 이러면서,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고 자기 그 사례에 대해서 되게 얘기 많이 하고, 수퍼비전 받을 태도보다는, 뭔가 자기가 이렇게 잘했다는 느낌의 수퍼바이지가 있었어요. 전 사실 그때도 약간... 쫄렸던 거 같아요. 약간 소심한 거. 음... 약간 걱정이 되었어요. 아, 내가 정말 이 사례에 대해서 저 사람 보다 모르나??" (참여자 6)

V. 논의 및 제언

초심 수퍼바이저의 역전이 경험과 그 의미를 알아보기 위하여 심층면담을 하였고, 이들의 경험을 현상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심 수퍼바이저들은 상담자로서 다양한 역전이 감정과 상황에 대하여 막힘없이 이야기 하였지만, 수퍼비전에서의 역전이 감정은 인식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심리전문가들이 초기에는 역전이에 대한 인식이 잘 되지 않았다가 이후 역전이를 깨닫게 되었다고 보고한 하 정[16]의 연구처럼 본 연구의 초심 수퍼바이저들도 역전이에 대한 자각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초심 수퍼바이저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역전이가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시간이 흐른 뒤 인지하게 되는 경우처럼[3], 시간이 지나면서 수퍼비전에서 경험한 역전이를 드러내었다. 이는 상담에서 상담자가 느끼는 역전이 뿐 아니라, 수퍼비전 내에서 수퍼바이저가 느끼는 역전이도 존재한다는 기존의 연구들[9][12-14][27][28][40]과 맥을 같이 한다. 역전이를 인식하는 것이 자신을 들여다보기 위한 출발점으로 본다면, 초심 수퍼바이저들의 역전이는 긍정적으로 느껴지기 보다는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우들이 많았다. 자신의 역전이를 인식하게 되면 들켜버린 것 같은 마음이 들었고 그 감정을 역전이라고 명명 하는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초심 수퍼바이저들에게 역전이 감정은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드러나고, 미해결된 자신의 문제로 인하여 역전이 감정이 올라오는 것이라고 생각되었기에 부끄럽고 당황스러웠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이러한 자신의 역전이 감정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의도적으로 억제하고 수퍼비전 사례에만 더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수퍼비전에서 자신의 역전이를 수퍼바이지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수퍼비전 회기 내에서, 혹은 시간을 가지고 자신의 감정에 대하여 곱씹어 보고 이후 수퍼비전에서 역전이를 다루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과

정들을 거치며 초심 수퍼바이저들은 자신만의 역전이와 대면하기 시작하였다. 역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과 인식하지 못하고 역전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르다. 초심 수퍼바이저들은 수퍼비전에서의 역전이를 차츰 인식하게 되면서 자신에게 조금 더 집중하게 되었고, 역전이가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역전이를 인식한다는 것은 그 만큼의 책임감을 가진다는 것을 뜻한다.

둘째, 초심 수퍼바이저들은 수퍼바이지가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이에 따른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했던 수퍼바이지의 수준이 생각보다 낮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불성실한 수퍼바이지와 대면하게 되었을 때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왔다. 수퍼바이지의 자격증 유무나 경력, 배경이 되는 출신학교 등은 상담자로서 어느 정도의 수준일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므로 예상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여겨지면 실망스럽고 답답하였다. 이러한 실망감은 수퍼바이지의 실력이 낮아서 일수도 있으나 수퍼바이저 자신의 문제일수 있다. 수퍼바이저 자신이 완벽을 추구하는 경우에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퍼바이지를 향해 역전이를 느끼는데, 이는 과도한 자기 기대가 수퍼바이저의 역전이를 일으킨다는 Ladany 등[2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수퍼바이지가 내담자와 수퍼바이저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부정적인 역전이 감정을 느꼈는데 수퍼바이지의 오만한 태도가 역전이를 유발하였다는 Grant와 동료들[9]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 사람에 대한 존중 없이 상담을 한다는 것은 상담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속상함을 넘어 분노의 감정까지 느끼기도 하였다. 상담의 기술은 배우고 노력할 수 있으나 사람에 대한 존중은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수많은 내담자를 만나게 되는 상담자와는 달리 내담자는 자신이 가진 시간 중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어쩌면 한 명 뿐인 상담자를 만나는 것 일수도 있다. 이처럼 내담자 일생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기에, 수퍼바이지가 진심을 가지고 내담자를 대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수퍼바이지의 실력이 향상되길 원하는 것은 수퍼바이지를 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담자를 이해하는 공감의 내용이 더욱 깊어졌기 때문이다. 내담자를 향한 공감이 깊어지는 만큼 수퍼바이지에게 기대한 개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보여 지면 속상하고 화가 나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겪으며 '기대'를 자신이 했다는 것, 그렇기에 수퍼바이지를 기다려주는 인내하는 과정도 필요함을 깨닫고 있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수퍼바이지 에게도, 수퍼바이저에게도 '시간'은 필요하다.

수퍼바이저는 자료를 보면서 수퍼비전 준비를 하게 되는데 내용이 부실한 자료는 수퍼비전의 준비를 어렵게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잘 정리된 자료를 마주하게 되면 전문성을 지닌 피드백이 가능하기에 전문가로서 존중받는 것과 같은 상징적인 의미로 느껴졌다. 초심 수퍼바이저들은 수퍼바이지를 배려한다는 의미에서 편의를 봐주었지만 결국 그러한 시도들이 수퍼바이지를 위한 것이 아님을, 오히려 그들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을 깨닫고 수퍼비전의 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행동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셋째, 초심 수퍼바이저들은 수퍼바이지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었다. 감사의 표현을 하는 수퍼바이지들을 볼 때면 자신처럼 느껴지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적극적인 태도로 수퍼비전에 임하여 내담자를 위하는 마음이 보여 질 때, 점점 발전하는 모습들이 보여 질 때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하였다. 수퍼바이지가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드는 기쁨과 뿌듯함의 긍정적인 역전이 감정은 수퍼바이지 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나타난다. Walker와 Gray[40]에 의하면 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지가 더 나은 상담자로 발달하기를 원하며 수퍼바이지에게 동일시를 느낀다고 하는데, 본 연구의 참여자인 초심 수퍼바이저들도 수퍼바이지와 동일시를 하며 지금보다 더 나은 상담자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수퍼바이지를 향한 긍정적인 피드백은 불안을 감소시키고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킨다[8]. 하지만 과도한 지지는 역전이의 한 형태로[41][42], 수퍼바이지를 향한 과도한 긍정적인 역전이 감정은 수퍼바이지를 향한 직면을 피하게 될 수 있다. 연구의 참여자인 초심 수퍼바이저들은 수퍼바이지에 대한 좋은 감정으로 인하여 명

확한 피드백이 어려울 때 중립성을 가질 수 없고, 수퍼바이지가 자신의 상담 스타일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을 점차 깨닫고 있었다. 수퍼바이지를 향한 좋은 감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해야 할 피드백을 덮어버리게 되어 수퍼바이지가 발전하는 것을 방해할지 모른다는 불안함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수퍼바이저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모두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부정적인 감정이 나쁜 것이 아니며, 긍정적인 감정이 좋은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서로 상반되는 역전이 감정 모두 수퍼비전에서 중요한 재료들이며, 초심 수퍼바이저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넷째, 초심 수퍼바이저들은 수퍼바이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의 관계에서 작업 동맹은 강력하고 중요하다[43]. 수퍼비전의 관계가 약하거나 둘 사이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도 곤란한 피드백을 피하게 되는데[9], 본 연구의 초심 수퍼바이저들은 둘 사이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 보다는 '초보'이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하나는 수퍼바이지와 좋은 관계를 지속하고 싶어 하였기에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보다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고, 피드백의 수위를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조심스러워하였다. 수퍼비전 하면서 직설적인 피드백으로 수퍼바이지와 서먹해진 경험을 반복하고 싶지 않은 것 또한 수퍼바이저가 피드백을 할 때 신중해지는 이유이기도 하였다. 전정운[35]의 연구에서 초심 수퍼바이저들이 초기에 교육적인 측면에서 수퍼비전을 실시한다고 했던 것처럼 본 연구의 초심 수퍼바이저들도 가르치는 역할에 집중했다가 수퍼바이지와 불편함을 경험한 후 부정적 피드백을 꺼리게 되었다. 그리고 초심 수퍼바이저 자신이 과거 경험했던 좌절을 수퍼바이지가 그대로 느끼고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자신이 좌절을 주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수퍼바이지의 눈치를 보며 표정을 살피게 되고 자신의 피드백을 후회하기도 하였다. 수퍼바이지가 수퍼바이저의 의견에 반대되는 말을 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숨기는 것처럼[44], 수퍼바이저 역시 수퍼바이지를 향한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에둘러 표현을 하거나 부드럽게 표현하려 하였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는 것은 수퍼바이저의 기본 역량으로 볼 수 있으며[45], 좋은 수퍼바이저가 되고 싶은 욕구이기도 하다. 초심 수퍼바이저들은 수퍼바이지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좋은 관계를 지속하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로 인하여 정작 해야 할 피드백을 못하게 되어 수퍼바이지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봐 염려가 되는 것이다. 이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려는 신중함이기도 하며, 수퍼바이지와의 관계에 대한 고심이었다.

다섯째, 초심 수퍼바이저들은 수퍼비전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수퍼비전에서의 충실하지 못한 태도는 수퍼비전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더 나아가 거절로 나타났다. 초심 수퍼바이저들은 수퍼바이지와의 신뢰로운 관계가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수퍼바이지와의 관계가 솔직하지 못하고 피상적이라는 생각이 들면 허전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져 수퍼비전을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었다. 수퍼비전이 싫어지는 것은 역전이의 전형적인 반응이다[14].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거나 변명으로 일관하는 수퍼바이지의 태도들은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한 수퍼바이저의 의욕을 저하시켰고 무기력함에 빠져들게 하였다. 공들여 준비했던 시간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수퍼비전 시간이 의미 없게 느껴졌다. 이것은 수퍼바이저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이기도 하였다. 상담을 하여도 내담자의 태도에 변화가 없을 때 상담자가 무능감을 느끼는 것처럼[46], 초심 수퍼바이저들도 변화 없는 수퍼바이지를 볼 때 무능감을 경험하게 된다.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며 피드백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수련생인 수퍼바이지의 문제일 수 있기에[47], 수퍼바이지가 오지 않기를 바라게 되며 나아가 수퍼비전을 거절하기도 하였다. 훈련이 어렵고 배우기 어려운 수퍼바이지의 수퍼비전을 종결했던 사례[9]처럼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 모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거절하게 되었다. 수퍼비전을 왜 해야 하는지 필요성조차 잘 모르거나 배우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때로는 그것이 수퍼바이저의 무능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되었

다. 마치 수퍼바이저인 자신이 제대로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수퍼바이지를 통해 증명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수퍼바이지의 성장과 발전은 수퍼바이지의 능력으로 귀인하고 있었지만, 수퍼바이지의 발전이 없는 것은 수퍼바이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귀인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섯째, 초심 수퍼바이저들은 좌절을 경험하며 전문가로 서기 위하여 애쓰고 있었다.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은 쉽지 않다. 초심 수퍼바이저들은 전문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 받는 듯한 느낌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감정은 스스로 위축되고 자격지심을 가지게 하였으며, 자신의 전문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연결되었다. 자신이 수퍼비전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과 함께 수퍼바이지가 발달하는 만큼 자신이 따라가지 못할까봐 염려하는 불안함 이었다. 새로운 역할에 적응해야 하는 초심 수퍼바이저들은 역할에 익숙하지 않아 타인의 평가에 취약할 수 있다. 전문상담자로서의 자격은 갖추었지만 그것이 수퍼바이저의 자격을 획득한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피드백에 자신감이 부족하고 염려가 되었다. 자신의 수퍼비전에 자신감이 부족한 것은, 초심 수퍼바이저가 자신감 있게 수퍼비전을 실시한다는 전정운[35]의 연구와는 다르게 나타났지만, 수퍼바이저의 역할에서 좌절을 느끼고[48], 자신의 역량과 판단에 대하여 고민하고 수퍼바이지에게 적절하게 개입하고 있는지 고민한다는[19] 기존 연구들과는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것은 자신의 과거 수퍼바이저처럼 유능하고 좋은 수퍼바이저로 인정받고 싶다는 울림과도 같다. 유능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일정한 체계를 갖추고 해야 할 피드백을 거르지 않았던 자신의 수퍼바이저를 닮고 싶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 받는다는 느낌은 유능 하고 좋은 수퍼바이저가 되는 것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신감 있는 수퍼비전하지 못하는 것은 수퍼비전 교육의 부재이기도 하다[18][43]. 수퍼비전 훈련과 교육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문가가 되었으니 수퍼비전을 교육받기 보다는 자기 스스로 공부하면서 터득해야 한다고 참여자들은 말한다. 수퍼비전을 잘 하기 위한 실제적인 개입방법은 학습하지 못하였지만 수퍼바이저 자신의 역전이를 다루는 것은 초심 수퍼바이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상담전문가인 수퍼바이저는 상담자의 역할 이외에도 수퍼바이저로서의 역할이 주어진다. 그 역할을 모두 해내기 위하여,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하여 스스로 공부하고 자신의 역전이를 이해하고 다루며 수퍼비전의 경력이 쌓이는 것이 중요함을 느끼고 있었다.

상담에서 내담자에게 역전이가 일어나듯, 수퍼비전에서도 역전이 감정은 일어난다. 수퍼비전은 교육적인 측면이 있기에 초심 수퍼바이저의 성향이나 경험이 드러나지 않을 것 같지만, 내담자와 수퍼바이지를 향하여 역전이는 나타난다. 수퍼바이저 자신이 완벽 성향을 가졌을 때, 혹은 권위자와 어른들과의 관계는 원활하게 되는 것에 비해 아랫사람에 대한 이해와 포용력이 부족해서 역전이가 올라오기도 하고, 수퍼바이지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해야 할 피드백을 참느라 스스로에게 화가 나기도 하였다.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다고 느껴졌을 때, 내담자를 위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때, 자신이 경험한 좌절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을 때, 눈물 흘리는 수퍼바이지를 마주 하였을 때, 유능한 수퍼바이저로 인정 받고 싶을 때, 역전이 감정이 올라온다. 수퍼바이지의 눈물은 누군가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들게 하고, 누군가에게는 개입이 잘 되어간다는 의미로 뿌듯함을,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자기방어를 하는 것으로 느껴져 더 이상의 피드백을 하지 못하게 되는 방어벽으로 모두 다르게 느껴졌다. 초심 수퍼바이저들은 이렇듯 자신의 역전이가 올라오는 시점과 상황들을 조금씩 명확하게 그려나가고 있었다. 이러한 역전이 감정들을 통하여 자신의 과거 경험을 떠올리고, 내담자와 수퍼바이지를 보는 시각도 변화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처럼 초심 수퍼바이저들은 역전이에 주의를 기울이게 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자신의 역전이로 인하여 부족함과 불완전함을 확인하게 되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자신의 역전이를 바라보는 용기를 갖게 되고, 그 역전이가 수퍼바이지와 함께 경험되어지는 생생한 역동의 한 부분임을 깨닫게 된 것은 '성장'의 또 다른 이름이다. 자신의 역전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다룰 것인지 고민하는 수퍼바이저들의 모습은 인간으로써, 전문가로써 자기

자신에 대한 진정한 수용에 다가가는 모습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역전이는 자신을 보는 거울이며 인간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이므로 긍정적인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초심 수퍼바이저의 역전이 경험과 그 의미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수퍼비전에서 역전이 경험들과 그 역전이로 인하여 수퍼바이지와 수퍼바이저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새로운 수퍼비전의 영역에 발을 딛게 된 초심 수퍼바이저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경험적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수퍼바이저의 역전이에 대한 연구가 드문 시점에서 초심 수퍼바이저의 역전이를 알아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질적 연구는 주관적 경험에 대하여 풍부하게 드러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앞으로 수행될 연구들의 가설을 제공해줄 수 있다. 그러므로 질적 연구를 통하여 초심 수퍼바이저의 역전이가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둘째, 역전이가 나타나는 현상의 이면에 감추어졌던 자신의 욕구나 경험들이 수퍼바이저 자신을 포함한 수퍼바이지를 향하여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과정을 수면위로 올렸다는데 의의가 있다. 수퍼비전을 준비하고 실시하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수퍼비전 시간을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역전이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의 이면에 숨겨진 자신의 역사와 욕구를 뒤돌아보며 긴 호흡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수퍼비전이다. 따라서 초심 수퍼바이저의 역전이가 은밀하게 혹은 자신도 모르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전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확인하였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셋째, 수퍼바이저의 역전이를 다루어야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지에게 권위를 가지는 대상이므로, 자신의 역전이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고 수퍼비전을 할 경우 그 영향은 수퍼바이지뿐 아니라 내담자, 그리고 자신에게 까지 미칠 수 있으므로 상담에서의 역전이뿐 아니라, 수퍼바이저의 역전이를 다룰 수 있는 교육 기회가 제공되기를 희망한다.

역전이를 다루기 위하여 개인의 가족을 포함한 깊은 회상은 필연적이나 본 연구에서 개인의 역사를 다루는데 한계가 있었고, 이는 연구의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연구 분석 팀이 본 연구의 초심 수퍼바이저들과 유사한 조건으로 구성되었는데 초심 수퍼바이저의 경험을 잘 드러내줄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참여자들보다 많은 수퍼비전 경험을 가진 숙련된 수퍼바이저를 분석 팀으로 구성하였다면 드러나지 않은 이면에 숨어있는 더 깊은 통찰이 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므로 수퍼비전 수행 경력에 따른 역전이와 그 역전이를 다루는 과정들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수 있도록 추후 연구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 본 연구는 김명화(2018)의 박사학위(명지대학교) 논문 일부를 수정, 요약한 내용입니다.

참 고 문 헌

[1] L. Burwell-Pender and K. H. Halinski, “Enhanced awareness of countertransference,” Journal of Professional Counseling, Practice, Theory, & Research, Vol.36, No.2, pp.38-51, 2008.

[2] J. A. Hayes, J. E. McCracken, M. K. McClanahan, C. E. Hill, J. S. Harp, and P. Carozzoni, “Therapist perspectives on countertransference: Qualitative data in search of a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45, No.4, pp.468-482, 1998.

[3] S. P. Sattar, D. A. Pinals, and T. G. Gutheil, “Countering countertransference, II: Beyond Evaluation to Cross-Examin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Psychiatry and the Law, Vol.32, No.2, pp.148-154, 2004.

[4] 최명식, *역전이 활용 척도의 개발 및 타당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5] 김택준, 신희천, “역전이 관리능력이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제28권, 제2호,

pp.291-309, 2016.

[6] 김현수, 차지은, "아동상담자의 슈퍼비전 경험과 역전이 관리능력 간 관계에서 대인관계성향의 중재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제18권, 제4호, pp.265-284, 2015.

[7] R. Gregurek, "Special Section: Internal and External Boundaries of Supervision," The Group-Analytic Society, Vol.40, No.2, pp.167-177, 2007.

[8] A. K. Hess, K. D. Hess, and T. H. Hess, *Psychotherapy supervis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John Wiley & Sons, 2008.

[9] J. Grant, M. J. Schofield, and S. Crawford, "Managing difficulties in supervision: Supervisors' perspectiv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59, No.4, pp.528-541, 2012.

[10] M. L. Nelson and M. L. Friedlander, "A close look at conflictual supervisory relationships: The trainee's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48, No.4, pp.384-395, 2001.

[11] C. J. Quarto, "Supervisors' and supervisees' perceptions of control and conflict in counseling supervision," The clinical supervisor, Vol.21, No.2, pp.21-37, 2003.

[12] N. Ladany, M. V. Ellis, and M. L. Friedlander, "The supervisory working alliance, trainee self efficacy, and satisfact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Vol.77, No.4, pp.447-455, 1999.

[13] T. L. Young, G. W. Lambie, T. Hutchinson, and J. Thurston-Dyer, "The integration of reflectivity in developmental supervision: Implications for clinical supervisors," The Clinical Supervisor, Vol.30, No.1, pp.1-18, 2011.

[14] J. Prasko and J. Vyskocilova, "Countertransference during supervision in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Activitas Nervosa Superior Rediviva, Vol.52, No.4, pp.253-262, 2010.

[15] 전수경, "상담심리전문가들이 경험을 통해 지각된 숙련상담자의 특성에 대한 연구," 가족과 상담, 제6권, 제1호, pp.23-41, 2016.

[16] 하 정, "상담전문가의 역전이 관리 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제28권, 제2호, pp.311-337, 2016.

[17] D. J. Tobin, "Countertransference and the hidden client in counselor training and supervision," The Journal of the Pennsylvania Counseling Association, Vol.5, pp.19-29, 2003.

[18] 김명화, 홍혜영, "초심 수퍼바이저의 수퍼비전 교육 필요성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2호, pp.573-594, 2017.

[19] 방기연, 김만지, *상담수퍼비전의 주요사건,* 시그마프레스, 2005.

[20] J. Vyskocilova and J. Prasko, "Countertransference, schema modes and ethical considerations in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Activitas Nervosa Superior Rediviva, Vol.55, No.1-2, pp.33-39, 2013.

[21] D. J. Kiesler, "Therapist countertransference: In search of common themes and empirical referent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57, No.8, pp.1053-1063, 2001.

[22] 양정연, *상담자 내담자 애착 유형 조합에 따른 작업동맹과 역전이 행동,*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23] S. M. Friedman and C. J. Gelso, "The development of the inventory of countertransference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56, No.9, pp.1221-1235, 2000.

[24] J. L. Dimino, "The interns play: A mimetic approach to introducing and working with countertransference in professional training," Journal of College Student Psychotherapy, Vol.23, No.3, pp.184-195, 2009.

[25] C. Jacobs, "Violations of the supervisory relationship: An ethical and educational blind spot," Social Work, Vol.36, No.2, pp.130-135, 1991.

[26] N. Ladany, M. G. Constantine, K. Miller, C. D. Erickson, and J. L. Muse-Burke, "Supervisor

countertransference: A qualitative investigation into its identification and descrip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47, No.1, pp.102-115, 2000.

[27] S. H. Teitelbaum, "Aspects of the contract in psychotherapy supervision," Psychoanalysis and Psychotherapy, Vol.8, No.1, pp.95-98, 1990.

[28] C. E. Watkins Jr, "Toward a tripartite vision of supervision for psychoanalysis and psychoanalytic psychotherapies: Alliance, transference-countertransference configuration, and real relationship," The Psychoanalytic Review, Vol.98, No.4, pp.557-590, 2011.

[29] 소수연, *수퍼바이저의 효과적인 수퍼비전 요소 탐색과 수퍼비전 수행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30] 장세미, *수퍼바이저 발달 요소 탐색 및 수퍼바이저 발달 척도 개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31] 이광숙, 최균, "후기고령노인의 자살시도 경험," 한국콘텐츠학회, 제15권, 제7호, pp.244-254. 2015.

[32] 성향숙, "결혼이민여성의 가족생활 적응전략,"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7호, pp.316-327, 2011.

[33] A. Giorgi(Ed.),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Pittsburgh, PA: Duquesne University Press, 1985.

[34] J. A. Smith, P. Flowers, and M. Larkin, *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 Theory, method and research,* Los Angeles: Sage, 2009.

[35] 전정운, *초심 수퍼바이저의 전문성 발달과정 연구,*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36] 노문선, *기독교 상담자의 역전이 경험에 대한 연구.*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37] E. G. Guba and Y. S. Lincoln, *Effective evaluation: Improving the usefulness of evaluation results through responsive and naturalistic approaches,* Jossey-Bass, 1981.

[38] 박병금, "결혼이민여성의 가족적응 과정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2호, pp.277-295, 2013.

[39] 장정연, "청소년의 비행또래에 대한 구조와 본질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4호, pp.211-226, 2014.

[40] J. A. Walker and L. A. Gray, *Categorizing supervisor countertransferenc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Psychotherapy Research International Conference, Santa Barbara, CA, 2002.

[41] C. Cartwright, P. Rhodes, R. King, and A. Shires, "Experiences of countertransference: Reports of clinical psychology students," Australian Psychologist, Vol.49, No.4, pp.232-240, 2014.

[42] D. P. Ligiéro and C. J. Gelso, "Countertransference, attachment, and the working alliance: The therapist's contribution.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Vol.39, No.1, pp.3-11, 2002.

[43] N. Ladany, Y. Mori, and K. E. Mehr, "Effective and ineffective supervisio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Vol.41, No.1, pp.28-47, 2013.

[44] 방기연, "상담심리사의 수퍼비전 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제18권, 제2호, pp.233-254, 2006.

[45] C. A. Falender and E. P. Shafranske, "Psychotherapy-based supervision models in an emerging competency-based era: A commentary,"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Vol.47, No.1, pp.45-50, 2010.

[46] 최명균, *노인상담에서 상담자의 역전이 경험,* 백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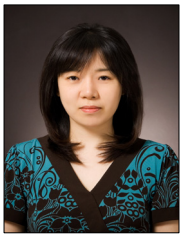
[47] 이소연, 최바울, 이정선, 서영석, "수퍼바이저가 경험한 상담수련생의 전문적 역량의 문제," 한국

심리학회지, 제26권, 제2호, pp.245-270, 2014.

[48] J. T. Duffy and D. A. Guiffrida, “The Heroic Supervisor: Using the Hero's Journey to Facilitate Development in Supervisors-in-Training,” The Clinical Supervisor, Vol.33, No.2, pp.144-162, 2014.

저 자 소 개

김 명 화(Myong-Hwa Kim) 정회원



- 2010년 8월 :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과(석사)
- 2018년 2월 : 명지대학교 대학원 심리재활학(박사)
- 2014년 9월 ~ 2018년 현재 : 명지통합치료연구센터 수퍼바이저
- 2018년 2월 ~ 2018년 현재 : GS 칼텍스 여수공장 상담실 센터장

<관심분야> : 상담, 수퍼비전, 수퍼바이저, 대인관계

홍 혜 영(Hye-Young Hong) 평생회원

- 2006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상담심리전공(박사)
- 2007년 8월 ~ 현재 :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과 교수
- 2013년 3월 ~ 현재 : 명지대학교 대학원 심리재활학 교수

<관심분야> : 청소년상담, 정신건강, 적응, 대인관계, 성격